국어 · 독서 · 개념 이해·적용 학습지

독서06

사실 확인과 추론

대치동 재우쌤

단원 지도 연결 개념: 독서06-01~06-06

묶음	읽기의 종류	핵심 질문	쓰는 도구	질문 번호
1. 명시된 정보	사실적 읽기	글에 무엇이 제시되어 있나요?	틀 ①	질문 01~03
2. 추론과 근거의 범위	추론적 읽기	쓰여 있지 않은 말은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틀 ① + ②	질문 04~06
3. 연역과 조건 적용	추론적 읽기	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틀 ② 실선	질문 07~09
4. 귀납과 일반화	추론적 읽기	관찰한 사례를 넘어 말해도 되나요?	틀 ② 점선	질문 10~12
5. 생략된 전제	추론적 읽기	근거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빠졌나요?	틀 ② 점선 상자	질문 13~15
6. 글쓴이의 의도와 태도	추론적 읽기	어떤 표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틀 ①	질문 16~18

단원에서 이어 볼 것: ① 명시된 정보의 정확한 파악 · ②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 ③ 추론의 연결과 결론의 강도.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단원의 두 가지 도구

이 방의 보관 상자에는 모두 이름표가 있다. 초록 상자는 이 방의 보관 상자이다. 이름표의 재료는 밝히지 않았다.

틀 ① · 세 가지 판정

기호	뜻	예문의 판단
◯	**근거로 확인됨**	초록 상자에는 이름표가 있다.
✕	**근거와 충돌**	초록 상자에는 이름표가 없다.
?	**근거 부족**	초록 상자의 이름표는 종이로 만들었다.

?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근거만으로 참·거짓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틀 ② · 추론의 뼈대

쓰여 있는 근거 1 · 규칙(일반적인 원리)
이 방의 보관 상자에는 모두 이름표가 있다.

쓰여 있는 근거 2 · 사례(구체적인 경우)
초록 상자는 이 방의 보관 상자이다.

↓ 두 근거를 함께 연결함

결론: 초록 상자에는 이름표가 있다.

이 단원의 추론 도식에서는 **실선 화살표**로 반드시 따라오는 결론을, **점선 화살표**로 관찰 범위를 넓힌 예상을 나타냅니다. **점선 테두리 상자**는 글에 쓰여 있지 않아 채워 넣는 전제입니다.

1 명시된 정보

글에 무엇이 제시되어 있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사실적 읽기	글에 드러난 내용과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읽기	글 “학생 대표는 음악을 더 넣자고 했다.” 이 용어로 보면 대표가 낸 의견을 정확히 확인함
명시된 정보	글에서 직접 밝혀 놓은 내용	글 “방송부원 두 명은 학교 소식을 더 전하자고 했다.” 이 용어로 보면 의견을 낸 사람과 의견의 내용이 직접 나와 있음
범위	말이 적용되는 대상·수량·시간·조건의 한계	글 “이번 달 야간 체험 신청자 중 일부.” 이 용어로 보면 이번 달·야간 체험 신청자·일부로 한정됨

연결 개념: 독서06-01.

질문 01 의견도 사실적 읽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 의견이 옳은지와 별개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학생 대표는 “점심 방송에 음악을 더 넣자”라고 제안했다. 방송부원 두 명은 음악보다 학교 소식을 더 전하자고 했다.

구조 보기

의견의 내용과, 의견이 제시된 사실

학생 대표의 의견
“음악을 더 넣자.”
확인: 대표가 낸 제안

방송부원 두 명의 의견
“학교 소식을 더 전하자.”
확인: 두 명이 낸 제안

?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가?
의견을 소개했다는 것만으로 우수성이 입증되지는 않음

오해 바로잡기

✕ 대표의 제안이 글에 나왔으므로 음악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확인되는 정보는 대표가 “음악을 더 넣자”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입증한 내용은 없다.

질문 02 낱말이 달라지면 글의 내용과도 달라지나요?

표현을 바꾸어도 뜻이 같으면 맞는 읽기입니다. 다만 대상·수량·시간·조건의 범위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문

이번 달 야간 체험에 신청한 학생 가운데 일부는 보호자와 함께 올 예정이다.

구조 보기

바꾸어 읽은 말	판단	확인할 표현
이번 달 야간 체험 신청자 중 보호자와 동행할 예정인 학생이 있다.	◯ 같은 뜻으로 확인됨	함께 올 예정 → 동행할 예정
이번 달 신청자는 모두 보호자와 온다.	? ‘일부’만으로 ‘모두’는 확인할 수 없음	일부 → 모두로 범위를 넓힘
그 학생들은 보호자와 이미 체험을 마쳤다.	✕ 아직 오지 않은 ‘예정’을 이미 끝난 일로 바꿈	올 예정이다 → 이미 마쳤다
다음 달에도 같은 학생들이 보호자와 온다.	? 다음 달 정보가 없어 근거 부족	이번 달 → 다음 달로 시간을 넓힘

오해 바로잡기

✕ 글에 ‘동행’이라는 낱말이 없으므로 동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함께 올 예정이다’와 ‘동행할 예정이다’는 여기서 같은 뜻이다. 표현보다 뜻과 범위를 확인한다.

질문 03 ‘일부’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반대라고 보면 되나요?

일부가 그렇다는 정보만으로 나머지의 상태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인 대상이 있는지도 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가] 신청자 중 몇 명이 안내문을 읽었다. 나머지 신청자의 확인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나] 신청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안내문을 읽었고, 네 명은 읽지 않았다.

구조 보기

확인할 내용	[가]	[나]
읽은 사람이 있는가?	◯ 있음	◯ 있음: 여섯 명
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 이 글만으로 알 수 없음	◯ 있음: 네 명
나머지의 상태를 밝힌 표현	‘확인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	‘네 명은 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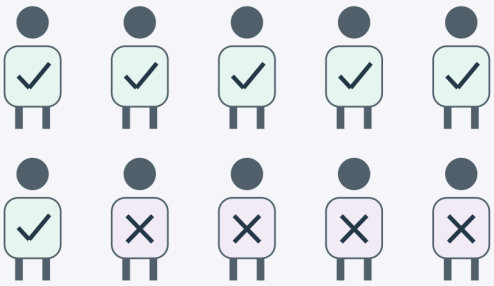
일부를 확인한 것과 나머지의 상태

[가]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음



나머지: 읽었는지 아닌지 모름
? 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나] 나머지도 상태를 밝힘



나머지: 읽지 않았다고 밝힘
◯ 읽지 않은 사람도 확인됨

✓ 읽음 × 읽지 않음 ? 조사하지 않아 모름

사람 안 기호 = 읽은 상태 · 문장 앞 ◯ / ? = 근거에 따른 판정

[가]의 그림 속 인원수는 실제 수가 아님

오해 바로잡기

✕ [가]에서 몇 명이 읽었다고 했으므로 나머지는 모두 읽지 않았다.

○ [가]는 나머지의 '확인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읽었다는 확인과 읽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별한다.

확인과 적용

문항 01 제시된 의견

지호는 학교 정원에 의자를 더 놓자고 했다. 세린은 의자보다 화단을 늘리자고 했다. 두 제안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의자를 늘리는 편이 화단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고 입증되었다.

② 지호와 세린은 모두 화단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

③ 지호는 학교 정원에 의자를 더 놓자고 제안했다.

④ 세린은 정원에 이미 놓인 의자를 모두 치우자고 했다.

문항 02 같은 뜻 찾기

이번 주 신청한 모둠 가운데 두 모둠은 발표 자료를 고쳐 낼 예정이다.

예정된 일을 같은 뜻으로 바꾼 표현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이미 수정하여 제출했다
㉡ 수정하여 제출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절대 제출하지 않는다

답: _____

문항 03 조건과 범위

이번 겨울 캠프에서는 금요일까지 신청한 학생 중 희망자에게만 숙소 안내를 문자로 보낼 예정이다.

내용의 범위를 지켜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다음 겨울 캠프 신청자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다.

② 신청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숙소 안내를 보낸다.

③ 문자를 받을 대상은 금요일까지 신청한 학생 중 희망자이다.

④ 금요일까지 신청한 학생은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를 받는다.

문항 04 알려진 범위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학생 몇 명이 사진 편집을 맡았다. 다른 참여 학생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는 이 글에 쓰지 않았다.

이 글만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사진 편집을 맡은 학생은 한 명도 없다.

② 사진 편집을 맡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만, 다른 학생들의 역할은 알 수 없다.

③ 소식지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역할이 빠짐없이 밝혀졌다.

④ 다른 참여 학생들은 사진 편집을 전혀 하지 않았다.

문항 05 대상과 시간 확인

담당자는 다음 주 화요일에 2학년 신청자에게만 자료를 나누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에서 밝힌 대상과 날짜를 찾아 각각 한 칸에 쓰세요.

확인할 내용	답
대상	
날짜	

2 추론과 근거의 범위

쓰여 있지 않은 말은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추론적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미루어 아는 읽기	**글** “둥근 받침 위의 물건은 모두 만져 볼 수 있다. 나무 퍼즐이 그 위에 있다.” **이 용어로 보면** 나무 퍼즐을 만져 볼 수 있음을 알아냄
추론	제시된 근거를 연결하여 직접 적히지 않은 내용을 이끌어 내는 일	**글** “월요일에는 문을 연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이 용어로 보면** 오늘 문을 연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
근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보	**글** “둥근 받침 위의 물건은 모두 만져 볼 수 있다. 나무 퍼즐이 그 위에 있다.” **이 용어로 보면** 규칙과 퍼즐의 위치가 판단을 뒷받침함
근거 부족	주어진 정보만으로 참·거짓을 결정하기 어려움	**글** “두 명 이상이 검토했다.” **이 용어로 보면** 정확히 두 명인지는 결정하기 어려움

연결 개념: 독서06-02.

질문 04 정답 문장이 글에 그대로 없으면 추측 아닌가요?

> **글에 그대로 없어도 제시된 정보들을 연결하면 반드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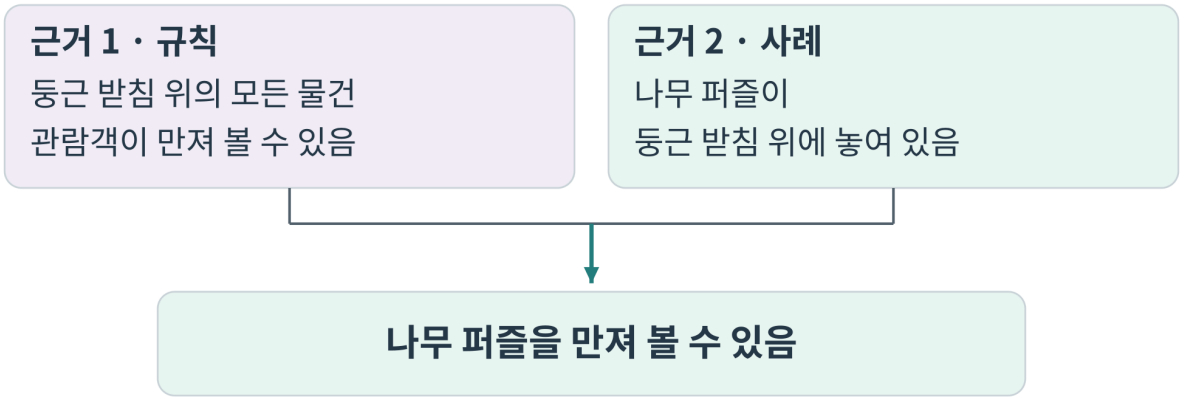
예문

이번 전시에서 둥근 받침 위에 놓인 물건은 모두 관람객이 만져 볼 수 있다. 나무 퍼즐이 둥근 받침 위에 놓여 있다.



구조 보기

쓰여 있는 두 정보에서 새 판단으로



화살표 = 두 근거를 연결해 이끌어 낸 결론

오해 바로잡기

✕ ‘나무 퍼즐을 만져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없으므로 그 말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 ‘둥근 받침 위의 물건은 모두’라는 규칙과 ‘나무 퍼즐이 둥근 받침 위에’ 있다는 정보를 연결하면 만져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 05 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가요?

근거로 확인되는 말, 근거와 충돌하는 말,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문

이번 전시에 걸린 작품은 모두 두 명 이상이 검토했다. 유리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 걸렸다. 작품별 검토 인원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구조 보기

확인 · 충돌 · 근거 부족

◯ 확인	**유리의 작품은 두 명 이상이 검토했다.** 전시 작품의 규칙에 유리의 작품을 적용함
× 충돌	**유리의 작품은 아무도 검토하지 않았다.** 두 명 이상이라는 정보와 함께 참일 수 없음
? 근거 부족	**유리의 작품은 정확히 두 명이 검토했다.** 두 명일 수도, 세 명 이상일 수도 있음

? 는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글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

오해 바로잡기

✕ 정확히 두 명이 검토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두 명이 검토했다는 말은 반드시 거짓이다.

○ ‘두 명 이상’에는 두 명도 세 명도 포함된다. 정확히 두 명이라는 말은 확인되지 않지만 근거와 충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 근거 부족이다.

질문 06 내 경험이나 상식을 보태면 추론이 더 정확해지나요?

배경지식은 글을 이해하는 데 쓰되, 글에서 정한 조건을 바꾸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문

이 안내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매주 화요일에 쉰다. 월요일에는 문을 연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구조 보기

읽는 과정	판단
‘오늘은 월요일’과 ‘월요일에는 문을 연다’를 연결함	오늘 이 안내관은 문을 연다고 알 수 있음
내가 가 본 전시관은 월요일에 쉬므로 이곳도 쉰다고 함	이 안내관의 규칙과 충돌함
문을 열었으므로 안내관장이 안에 있다고 함	관장의 위치를 알려 주는 근거가 없음

오해 바로잡기

✕ 내가 다녔던 전시관처럼 이 안내관도 오늘 문을 닫을 것이다.

○ 이 안내관은 '월요일에는 문을 연다'고 했다. 다른 시설에서의 경험으로 이곳의 명시된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

확인과 적용

문항 06 정보 연결

이 체험관은 매주 수요일에 문을 닫는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두 정보를 연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오늘 이 체험관은 문을 닫는다.

② 체험관은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문을 연다.

③ 오늘 체험관의 전시품을 모두 다른 건물로 옮긴다.

④ 체험관장은 오늘 휴가를 떠났다.

문항 07 정확한 수 판단

이번 소식지에 실린 글은 모두 세 명 이상이 검토했다. 나빈의 글이 이번 소식지에 실렸다.

'나빈의 글은 정확히 세 명이 검토했다'는 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① 글이 실렸다는 것만으로는 검토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② 정확한 수가 없으므로 세 명이라는 말은 반드시 거짓이다.

③ 세 명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세 명이다.

④ 세 명 이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세 명인지는 근거가 부족하다.

문항 08 판단 나누기

이 작품전에서는 제출한 모든 작품에 번호를 붙였다. 태린은 작품을 제출했다. 번호표의 색은 밝히지 않았다.

각 문장을 주어진 근거로 판단하여 기호를 쓰세요.

고를 기호 ○ 근거로 확인됨
× 근거와 충돌
? 근거 부족

판단할 문장	기호
태린의 작품에는 번호가 붙었다.	
태린의 작품에는 번호가 붙지 않았다.	
태린의 작품 번호표는 노란색이다.	

문항 09 경험과 글의 조건

이 마을의 작은 영화관은 월요일에도 상영한다. 대신 매주 목요일에 쉰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글의 조건을 따른 판단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가던 시설은 월요일에 쉬었으므로 이 영화관도 오늘 쉰다.

② 오늘 상영하므로 모든 좌석이 이미 예약되었다.

③ 내가 아는 다른 영화관의 휴무일과 달라도, 오늘 이 영화관은 상영한다.

④ 목요일에 쉬므로 오늘은 목요일이다.

문항 10 계획과 확인

작업실은 오후 두 시부터 문을 연다. 다현은 오늘 오후 세 시에 작업실에 가기로 했다. 지금은 오늘 오전 열 시이다.

현재 글의 정보로 확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다현은 오늘 반드시 계획대로 작업실에 도착한다.

② 다현은 오늘 이미 작업실에 다녀왔다.

③ 작업실은 오후 세 시에 문을 닫는다.

④ 다현이 가기로 한 시각은 작업실이 문을 여는 시각보다 뒤이다.

---

3 연역과 조건 적용

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전제	추론에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판단	**글** “신청을 마친 모든 참가자에게 자료 봉투를 준다. 윤서는 신청을 마쳤다.” **이 용어로 보면** 두 판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윤서의 수령 여부를 이끌어 냄
결론	전제에서 이끌어 낸 판단	**글** “신청자는 모두 봉투를 받는다. 윤서는 신청자이다.” **이 용어로 보면** “윤서는 봉투를 받는다”가 결론
필연	반드시 그렇게 됨	**글** “신청자는 모두 봉투를 받는다. 윤서는 신청자이다.” **이 용어로 보면** 두 전제가 참이고 연결이 타당하면 윤서의 수령이 반드시 따라옴
연역(연역 추론)	주어진 전제에서 결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 내는 추론	**글** “신청자는 모두 봉투를 받는다. 윤서는 신청자이다.” **이 용어로 보면** 일반적인 규칙을 윤서에게 적용해 봉투 수령을 이끌어 냄
타당한 형식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이 거짓일 수 없는 추론의 짜임	**글** “신청하면 받는다.” **타당함** 신청했다 → 받는다. **타당하지 않음** 받았다 → 신청했다.

묶음 2에서 '근거'로 쓴 판단들을 추론의 짜임에서는 **전제**라고 부릅니다. 연역에서는 **전제가 참이고 형식이 타당해야 결론이 반드시 참**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연역이 이 형태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어에서 말하는 타당성은 근거가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와 관련됩니다. 여기서는 특히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형식의 타당성**을 살핍니다. '조건 → 결과'의 화살표는 판단이 따라오는 방향을 나타내며,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07 규칙과 사례를 연결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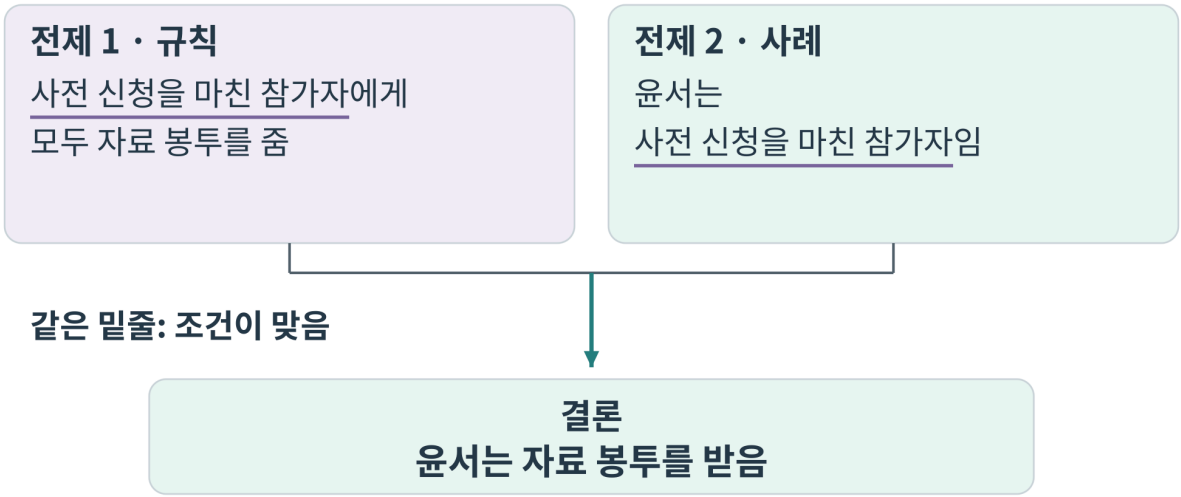
사례가 규칙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조건에서 따라오는 결과를 적용합니다.

예문

이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을 마친 모든 참가자에게 자료 봉투를 준다. 윤서는 사전 신청을 마친 참가자이다.

구조 보기

두 전제를 함께 적용해 결론 이끌어 내기



실선 화살표 = 두 전제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결론

오해 바로잡기

✕ 윤서가 자료 봉투를 받는지는 글에 없으므로 알 수 없다.

○ 윤서는 '사전 신청을 마친' 조건에 맞는다. 그 조건에 맞는 '모든 참가자'에게 준다고 했으므로 윤서도 자료 봉투를 받는다.

질문 08 자료 봉투를 받았으면 사전 신청을 했다고 알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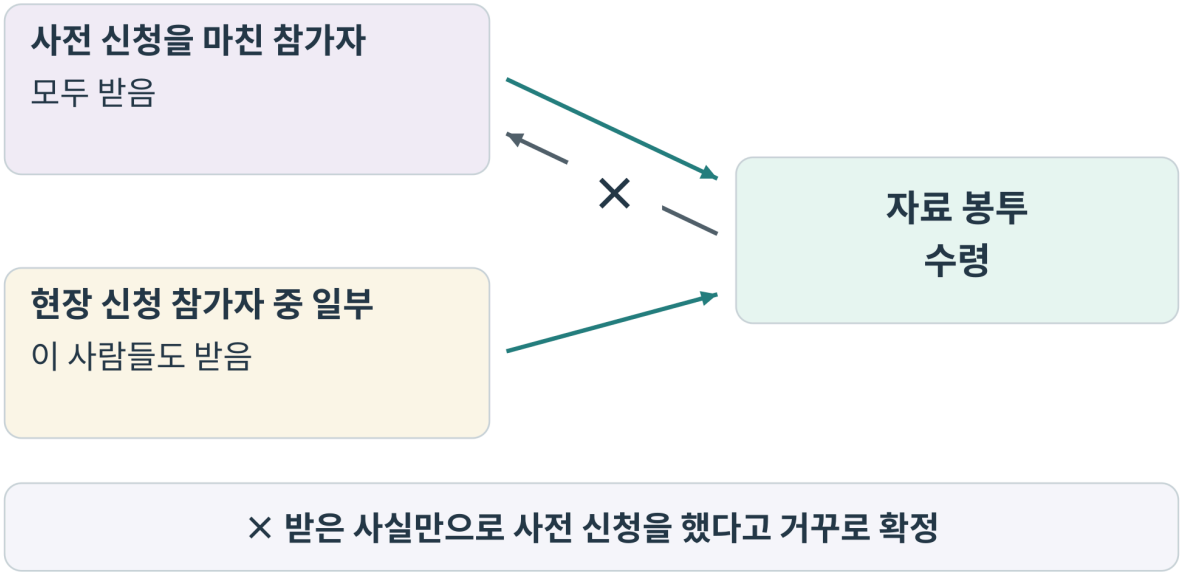
'사전 신청을 하면 받는다'는 규칙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사전 신청을 거꾸로 확정하거나,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문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마친 참가자에게 모두 자료 봉투를 주었다. 현장에서 신청한 일부 참가자에게도 자료 봉투를 주었다.

구조 보기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서로 다른 조건



회색 역방향 화살표의 × = 그 방향으로는 결론을 확정할 수 없음

아는 것	묻는 것	이 정보만으로 내릴 판단
사전 신청을 마쳤다.	봉투를 받는가?	◯ 받는다. 규칙의 조건에 맞는다.
봉투를 받았다.	사전 신청을 했는가?	? 알 수 없다. 현장 신청으로도 받은 사람이 있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봉투를 못 받는가?	? 알 수 없다. 현장 신청자 중에도 받은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의 수령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오해 바로잡기

✕ 자료 봉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사전 신청을 했다.

○ ‘현장에서 신청한 일부 참가자에게도’ 주었으므로, 자료 봉투를 받은 사실만으로 사전 신청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질문 09 연역으로 이끌어 낸 결론은 현실에서도 언제나 참인가요?

> **전제가 실제로 참이고 추론의 형식도 타당해야 현실에서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문

가상 게임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이 게임 속 금속 조각은 모두 물에 뜬다.” 작은 쇳조각은 이 게임 속 금속 조각이다. 따라서 작은 쇳조각은 물에 뜬다.

구조 보기

추론의 연결과 전제의 적용 범위

가상 게임 안에서

규칙: 게임 속 금속 조각은 모두 물에 뜸

사례: 작은 쇳조각은 게임 속 금속 조각임

↓

결론: 작은 쇳조각은 물에 뜸

현실에 적용하려면

이 전제가 현실에도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함

화살표 = 주어진 전제 안에서 결론이 따라오는 방향

오해 바로잡기

✕ 이 결론을 연역으로 이끌어 냈으므로 현실의 모든 쇳조각도 물에 뜬다.

○ 결론은 '이 게임 속'이라는 전제 안에서 따라온다. 가상 규칙을 현실의 물체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

확인과 적용

문항 11 규칙의 적용

발표 등록을 마친 모든 모둠은 무대 사용 시간을 배정받는다. 물결 모둠은 발표 등록을 마쳤다.

두 전제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① 등록하지 않은 모둠은 어떤 경로로도 시간을 배정받을 수 없다.

② 물결 모둠은 무대 사용 시간을 배정받는다.

③ 물결 모둠은 다른 모든 모둠보다 먼저 무대를 사용한다.

④ 무대 사용 시간을 배정받은 모둠은 모두 발표 등록을 마쳤다.

문항 12 두 조건의 적용

규칙: 안전 설명을 듣고 보호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는 모두 실습 도구를 준다.

이름	안전 설명	보호 안경
㉠ 가람	들음	쓰지 않음
㉡ 누리	들음	씀
㉢ 다솔	듣지 않음	씀

규칙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실습 도구를 받는다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의 기호를 쓰세요.

답: _____

문항 13 방향 점검

선발된 모든 안내원은 파란 배지를 받았다. 행사 지원을 나온 교사 몇 명도 파란 배지를 받았다. 채원은 파란 배지를 받았다.

채원에 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채원은 반드시 선발된 안내원이다.

② 파란 배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선발된 안내원인지 알 수 없다.

③ 안내원은 파란 배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채원은 안내원이 아니다.

④ 채원은 반드시 교사이다.

문항 14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 교실은 예약한 사람에게 모두 사물함을 배정했다. 예약하지 않은 현장 방문객의 배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시우는 예약하지 않은 현장 방문객이다.

시우의 사물함 배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① 현장에 방문했으므로 반드시 배정받았다.

② 예약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배정받지 못했다.

③ 시우가 예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④ 예약하지 않은 사람의 규칙이 없으므로 배정 여부를 알 수 없다.

문항 15 가정 안에서의 결론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종이배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은빛 배는 이 이야기 속 종이배이다. 따라서 은빛 배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이 추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주어진 가정 안에서는 결론이 따라오지만, 현실의 종이배가 날 수 있음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② 전제가 가정이므로 전제와 결론이 연결되는지는 따질 수 없다.

③ 결론을 연역으로 이끌어 냈으므로 현실의 모든 종이배도 날 수 있다.

④ 은빛 배가 종이배라는 전제가 없더라도 이 규칙만으로 같은 결론이 확정된다.

문항 16 두 규칙 잇기

이 행사에서는 자료 제작자 모두에게 준비실 출입증을 준다. 준비실 출입증을 받은 사람은 모두 포장대에 들어갈 수 있다. 유나는 자료 제작자이다.

유나에 관한 결론이 따라오는 순서로 두 기호를 빈칸에 쓰세요.

고를 말 ㉠ 포장대에 들어갈 수 있음
㉡ 준비실 출입증을 받음

자료 제작자임 → _____ **→** _____

---

4 귀납과 일반화

관찰한 사례를 넘어 말해도 되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귀납(귀납 추론)	개별 사례들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님	**글** “세 학급에서 빠뜨린 과제가 줄었다. 다른 학급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용어로 보면** 관찰한 학급을 넘어 다른 학급의 가능성까지 예상함
표본	알아보려는 전체 가운데 실제로 조사한 일부	**글** “전체 이용자의 희망 시간을 알아보려고 평일 오후 이용자 200명에게 물었다.” **이 용어로 보면** 조사한 200명이 표본
대표성	표본이 알아보려는 전체의 특성을 고르게 반영하는 정도	**글** “평일 오후 이용자에게만 물었다.” **이 용어로 보면** 오전·주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함
일반화	일부 사례에서 확인한 내용을 더 넓은 범위로 넓혀 판단함	**글** “세 학급에서 줄었으니 다른 학급에서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용어로 보면** 세 학급의 결과를 더 넓은 범위로 넓힘
반례	주장에 맞지 않아 그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	**글** “확인표를 붙이면 어느 반에서나 반드시 줄어든다.” 그러나 붙여도 줄지 않은 반이 있다. **이 용어로 보면** 조건에 맞으면서 결과가 다른 반이 반례

연결 개념: 독서06-04.

연역과 귀납 나란히 보기

살필 점	연역	귀납
대표적인 출발	일반적인 규칙과 그에 맞는 사례	관찰한 여러 사례
대표적인 도착	그 사례에 대한 결론	더 넓은 범위에 대한 결론·예상
결론의 확실함	전제가 참이고 형식이 타당하면 결론이 반드시 참	근거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지며,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님
점검할 것	조건에 맞는가 · 방향이 맞는가 · 전제가 실제로 참인가	사례의 수와 대표성 · 다른 요인 · 반례
이 단원 추론 도식의 화살표	실선	점선

질문 10 여러 사례가 같으면 다른 경우도 같다고 확정해도 되나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경우를 예상할 수 있지만, 관찰한 범위를 넘어선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예문

기록 모둠은 세 학급이 제출함 앞에 확인표를 둔 뒤 한 주 동안 빠뜨린 과제가 줄어든 것을 관찰했다.
기록 모둠은 다른 학급에서도 확인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조 보기

귀납: 관찰한 범위를 넘어 예상하기

관찰한 범위
세 학급 · 한 주
확인표를 둔 뒤
빠뜨린 과제가 줄었음

⇢

범위를 넓힌 예상
다른 학급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모든 학급 · 언제나 · 반드시 · 완전히 사라짐’까지
확정하려면 지금 관찰보다 훨씬 강한 근거가 필요함

점선 화살표 = 관찰을 바탕으로 범위를 넓힌 예상 · 필연은 아님

오해 바로잡기

✕ 세 학급에서 줄었으므로 모든 학급에서 확인표만 두면 빠뜨린 과제가 반드시 사라진다.

○ 관찰 범위는 '세 학급'과 '한 주'이며 결과도 '줄어든 것'이다. 다른 학급의 효과를 예상할 수는 있어도 모두 사라진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처럼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데 넓은 범위에 모두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질문 11 조사한 사람이 많으면 전체를 대표하나요?

표본 수뿐 아니라 누구를 어떤 조건에서 조사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많이 조사해도 한쪽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예문

도서관은 전체 이용자의 희망 개관 시간을 알아보려 한다. A 조사는 평일 오후 이용자 200명에게만 물었다. B 조사는 평일 오전·오후와 주말 이용자에게 각각 30명씩 물었다.

구조 보기

표본 수와 조사한 범위를 함께 보기

알아보려는 전체: 도서관의 모든 이용자

	평일 오전	평일 오후	주말
A 조사	조사 안 함	**200명**	조사 안 함
B 조사	**30명**	**30명**	**30명**

A: 수는 많지만 평일 오후 한 구역만 조사함
B: 세 구역을 모두 포함함. 다만 실제 이용자 비율은 더 확인

구역의 크기는 인원 비율을 나타내지 않음

오해 바로잡기

✕ A 조사는 200명에게 물었으므로 전체 이용자의 의견을 반드시 더 잘 반영한다.

○ A는 '평일 오후 이용자'에게만 물었다. B는 이용 시간대를 더 다양하게 포함하지만, 실제 이용자 비율 등도 확인해야 대표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질문 12 변화가 나타났다면 새 방법의 효과라고 확정하나요?

같은 시기에 달라진 다른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반례가 있으면 결론의 범위와 강도도 다시 점검합니다.

예문

한 반은 과제 확인표를 붙인 주에 마감 안내 방송도 시작했다. 그 주에는 미제출 인원이 줄었다. 다른 반은 확인표를 붙였지만 미제출 인원이 줄지 않았다.

'확인표를 붙이면 어느 반에서나 반드시 줄어든다'는 주장에서는, 붙였는데도 줄지 않은 반이 **반례**입니다. 주장의 조건에는 맞는데 결과가 다른 사례입니다.

구조 보기

단독 효과와 '언제나'를 나누어 점검

첫 반 · 같은 주의 변화
확인표를 붙임
안내 방송도 시작함
관찰 결과: 미제출 인원 감소

다른 반 · 조건에 맞는 사례
확인표를 붙임
관찰 결과: 미제출 인원
줄지 않음

? 확인표 하나의 효과인가?
다른 요인의 영향도 확인

× 어느 반에서나 반드시 감소
확인표를 쓰고도 줄지 않은 반

? 단독 효과 판단은 근거 부족 · × 예문의 반례와 충돌

오해 바로잡기

✕ 첫 반에서 미제출이 줄었으므로 확인표만이 원인이고, 확인표는 어느 반에서나 반드시 효과가 있다.

○ 첫 반에서는 '안내 방송도 시작'했으므로 확인표 하나의 효과인지는 알 수 없다(?). 또 '줄지 않았다'는 반이 있으므로 '어느 반에서나 반드시'는 틀린 말이다(×).

확인과 적용

문항 17 관찰에서 넓힌 판단

네 모둠이 역할표를 사용한 한 주 동안, 네 모둠 모두 준비 시간이 줄었다. 다른 모둠은 조사하지 않았다.

관찰 범위를 고려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다른 모둠에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예상하되, 조건과 추가 사례를 살펴야 한다.

② 모든 모둠의 준비 시간은 언제나 반드시 줄어든다.

③ 네 모둠의 준비 시간이 줄었다는 관찰 자체도 부정해야 한다.

④ 조사하지 않은 모둠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문항 18 관찰과 예상

㉠ 조사한 두 학급은 좌석 이름표를 붙인 뒤 일주일 동안 자리 찾는 시간이 줄었다.
㉡ 조사자는 다른 학급에서도 이름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각 역할에 해당하는 문장 기호를 쓰세요.

역할	기호
관찰한 범위에서 확인한 내용	
관찰한 범위를 넘어선 예상	

문항 19 표본의 범위

학교는 모든 학년의 급식 선호를 알아보려고 1학년 학생 80명에게만 설문했다.

일반화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무엇인가요?

① 2·3학년의 선호도 조사하여 학년별 의견을 함께 살핀다.

② 설문에 든 비용만 계산하고 모든 학년의 선호가 같다고 정한다.

③ 같은 1학년 학생에게 설문지의 글자 색만 바꾸어 다시 묻는다.

④ 급식실 의자의 색깔을 조사한다.

문항 20 표본 수와 대표성

마을 전체 주민의 이동 수단을 조사한다. A는 평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있는 300명에게만 물었다. B는 여러 주거 구역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주민 120명에게 물었다. 그 밖의 표본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두 조사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A는 300명에게 물었으므로 어떤 편중도 없다.

② B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했으므로 전체 주민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한다.

③ B는 수가 적으므로 주민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

④ A는 수가 많아도 조사한 장소·시간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B도 세부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문항 21 일반화와 반례

주장: “이 받침을 쓰는 모든 책은 책상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 이 받침을 쓰지 않은 책이 책상 위에서 넘어졌다.
㉡ 이 받침을 쓴 책이 책상 위에서 넘어졌다.
㉢ 이 받침을 쓴 책이 책상 위에서 넘어지지 않았다.

주장의 조건에 해당하면서 결과가 달라, ‘모든’이라는 결론을 무너뜨리는 반례의 기호를 쓰세요.

답: _____

문항 22 다른 조건의 변화

보관함에 사진 표지를 붙인 주에 담당 학생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다. 그 주에는 물품 찾는 시간이 줄었다.

이 관찰만으로 결론 내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사진 표지와 담당 학생 수가 함께 바뀌었으므로, 시간 단축을 사진 표지 하나의 효과로 확정할 수 없다.

② 사진 표지만이 시간 단축의 유일한 원인임이 입증되었다.

③ 시간이 줄었다는 관찰이 있으므로 담당 학생 수는 변하지 않았다.

④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사진 표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5 생략된 전제

근거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 무엇이 빠졌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생략된 전제	겉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근거와 결론을 잇는 판단	글 “도하는 안내 봉사자이다. 그러므로 준비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용어로 보면** 안내 봉사자의 입장 권한을 잇는 규칙이 생략됨
연결 고리	근거의 내용이 결론을 뒷받침하게 하는 관계	글 “서우는 장비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므로 촬영 장비를 빌릴 수 있다.” **이 용어로 보면** 교육 이수와 대여 가능을 잇는 규칙이 필요함

연결 개념: 독서06-05.

질문 13 생략된 전제는 글과 관련 있는 말이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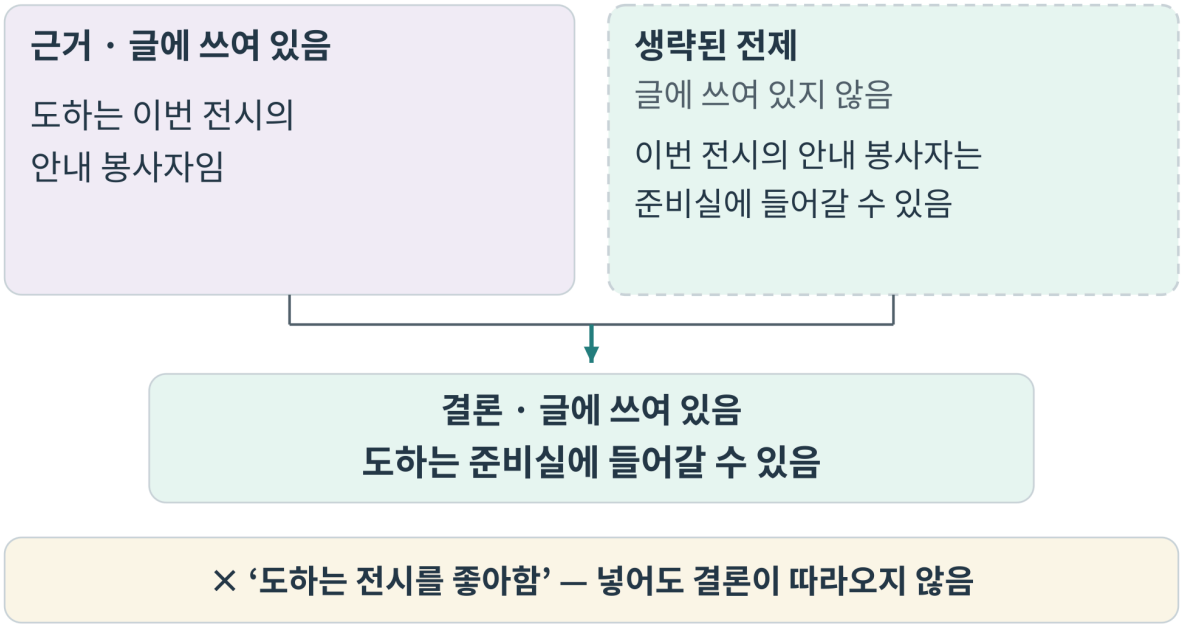
관련 있어 보이는 배경 설명이 아니라, 주어진 근거에서 결론이 따라오게 하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예문

도하는 이번 전시의 안내 봉사자이다. 그러므로 도하는 준비실에 들어갈 수 있다.

구조 보기

쓰인 근거와 생략된 전제를 함께 연결



실선 화살표 = 두 전제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결론

오해 바로잡기

✕ 도하가 전시를 좋아한다는 말을 넣으면 준비실 입장 권한이 설명된다.

○ '안내 봉사자'와 '준비실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어야 한다.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입장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질문 14 같은 낱말이 든 규칙인데 방향도 따져야 하나요?

같은 낱말을 써도 조건과 결과의 방향이 다르면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문

서우는 장비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므로 서우는 촬영 장비를 빌릴 수 있다.
후보 ㉠ 장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촬영 장비를 빌릴 수 있다.
후보 ㉡ 촬영 장비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장비 교육을 이수했다.

구조 보기

같은 낱말이어도 방향이 다르면

주어진 근거: 서우는 장비 교육을 이수함

◯ 후보 ㉠

교육을 이수함 → **촬영 장비 대여 가능**

? 후보 ㉡

촬영 장비 대여 가능 → **교육을 이수함**

㉠: 주어진 근거에서 대여 가능으로 연결됨
㉡: 교육 이수만으로 대여 가능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함

◯ 연결됨 · ? 이 후보만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오해 바로잡기

✕ 두 후보 모두 '장비 교육'과 '촬영 장비'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넣어도 된다.

○ 주어진 근거는 '교육을 이수했다'이다. 여기서 '빌릴 수 있다'로 가려면 ㉠의 방향이 필요하다. ㉡만으로는 교육 이수자 모두의 대여 권한을 알 수 없다.

질문 15 빠진 전제를 찾았으면 그 전제가 실제로도 맞는 건가요?

결론을 이어 주는 전제를 찾는 일과 그 전제가 실제 규칙인지 확인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예문

민서는 이번 행사의 오전 참가자이다. 그러므로 민서는 파란 자료집을 받는다.
이 판단을 잇는 후보: 이번 행사의 오전 참가자는 모두 파란 자료집을 받는다.

구조 보기

따로 확인할 것	이 예문의 판단
후보를 넣으면 결론이 따라오는가?	그렇다. 오전 참가자인 민서에게 파란 자료집 수령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행사 규칙이 이 후보와 같은가?	원래의 두 문장만으로는 알 수 없다. 운영 안내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행사의 오전 참가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후보는 '이번 행사'로 범위를 한정한다.

오해 바로잡기

✕ 내가 연결 전제를 찾아냈으므로 실제 행사 안내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 후보는 '이번 행사'의 근거와 결론을 이어 주지만, 그 규칙이 실제로 시행되는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확인과 적용

문항 23 연결 고리 찾기

예나는 이번 공연의 기록 담당자이다. 그러므로 예나는 촬영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주어진 근거에서 결론이 따라오게 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촬영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기록 담당자이다.

② 예나는 평소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 이번 공연에는 여러 종류의 무대 장치가 있다.

④ 이번 공연의 기록 담당자는 모두 촬영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문항 24 빠진 규칙 고르기

은호는 오늘의 체험 신청을 마쳤다. 그러므로 은호는 오늘 체험 재료를 받을 수 있다.

빠진 전제의 방향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오늘 체험 신청 완료 → 오늘 체험 재료 수령 가능
㉡ 오늘 체험 재료 수령 가능 → 오늘 체험 신청 완료
㉢ 체험에 관심이 있음 → 재료를 좋아함

답: _____

문항 25 후보 전제 점검

하린은 사전 점검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린은 전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후보 전제: 전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사전 점검을 받았다.

후보 전제를 점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같은 낱말이 있으므로 후보를 넣으면 결론이 반드시 따라온다.

② 사용 가능에서 점검 완료로 가는 규칙이므로, 점검을 받았다는 근거만으로 사용 가능을 확정하지 못한다.

③ 후보가 부족하므로 하린은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확정된다.

④ 후보가 부족하므로 하린이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도 취소된다.

문항 26 전제의 범위

지안은 이번 달 정기 신청자이다. 그러므로 지안은 이번 달 자료를 받는다.

주어진 대상과 시간 범위 안에서 근거와 결론을 이어 주는 전제는 무엇인가요?

① 지안은 자료에 실릴 그림을 좋아한다.

② 이번 달에는 정기 신청자가 자료를 받지 않는다.

③ 이번 달 정기 신청자는 모두 이번 달 자료를 받는다.

④ 이번 달 자료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음 달에도 정기 신청한다.

문항 27 연결과 검증 구별

근거: 현우는 이 모임의 회원이다.
결론: 현우는 공동 서가를 이용할 수 있다.
후보: 이 모임의 회원은 모두 공동 서가를 이용할 수 있다.

주어진 내용으로 각 판단이 성립하면 ○,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면 ?를 쓰세요.

판단	기호
후보를 전제로 넣으면 근거에서 결론이 따라온다.	
이 후보는 실제 모임의 운영 규칙이다.	

6 글쓴이의 의도와 태도

어떤 표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나요?

용어 약속

용어	뜻	문맥으로 보는 예
의도	글을 통해 하려는 일	글 “안내판의 글자를 키워야 한다.” 이 용어로 보면 안내판의 개선을 요구함
태도	대상을 대하는 입장이나 자세	글 “음성 안내는 유용하다. 같은 내용을 글로도 제공해야 한다.” 이 용어로 보면 장점을 인정하면서 보완을 요구함
수용 범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문제 삼는지	글 “화면을 보지 않고도 들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시끄러우면 듣기 어렵다.” 이 용어로 보면 화면 없이 듣는 장점은 인정하고 시끄러운 곳에서의 한계는 지적함

연결 개념: 독서06-06.

태도의 범위 한눈에 보기

태도: 어디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요구하나

인정한 부분과 실제로 요구한 조치를 함께 확인

전부 받아들임	인정 + 보완 요구	조건에 따라 바꿈	전부 거부
본문 예문에 해당 사례 없음	**질문 17** **음성 안내 인정 + 글도 제공** **질문 18 [가]** **화면 안내 유지 + 글자 확대 기능**	**질문 18 [나]** **이 장소에서는 종이 안내로 바꿈** 조건: 이 장소는 전기를 쓸 수 없음	본문 예문에 해당 사례 없음

부분의 한계나 특정 장소의 조건을
대상 전체에 대한 수용·거부로 넓히지 않음

각 칸 = 인정한 부분과 요구한 조치에 따른 구별

질문 16 글쓴이의 의도는 속마음을 상상하는 건가요?

의도는 글에서 제시한 내용과 요구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쓰이지 않은 개인 경험이나 감정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닙니다.

예문

복도 안내판은 글자가 작아 교실 뒤쪽에서 오면 읽기 어렵다. 안내판의 글자를 키우고 방향 표시를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구조 보기

글에 드러난 문제와 요구로 의도 읽기

문제 제시
글자가 작음
뒤쪽에서 오면 읽기 어려움

개선 요구
글자를 키움
방향 표시를 눈높이에 맞춤

의도: 안내판의 불편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함
? 길을 잃어 혼난 개인 경험 — 글에는 근거가 없음

의도는 표현과 요구에서 판단 · 쓰이지 않은 과거 경험은 덧붙이지 않음

오해 바로잡기

✕ 글쓴이는 길을 잃어 혼난 경험이 분명히 있어서 이 글을 썼다.

○ 글에 제시된 의도는 '읽기 어렵다'는 문제를 알리고 '키우고', '맞추어야 한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혼난 경험은 쓰여 있지 않다.

질문 17 단점을 지적하면 대상을 부정하는 태도인가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문제 삼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일부의 한계 지적이 전면 거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문

음성 안내는 화면을 보지 않고도 전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주변이 시끄러우면 듣기 어려우므로 같은 내용을 글로도 제공해야 한다.

구조 보기

인정한 점과 요구한 조치를 나누기

인정한 점
화면을 보지 않고도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유용함

지적한 한계
주변이 시끄러우면
듣기 어려움

↓

요구: 같은 내용을 글로도 제공
음성 안내를 유지하며 듣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함

× 음성 안내를 모두 없애자는 태도로 넓히지 않음

화살표 = 지적한 한계에 대응하는 보완 요구

오해 바로잡기

✕ 글쓴이는 음성 안내가 쓸모없으니 모두 없애자는 태도이다.

○ ‘유용하다’고 장점을 인정한다. ‘글로도 제공’하자는 요구는 음성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듣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자는 말이다.

질문 18 ‘그러나’ 뒤의 문장만 읽으면 태도를 알 수 있나요?

접속 표현은 단서입니다. 앞뒤 내용의 관계와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문

[가] 화면 안내는 수정이 빠르다. 그러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글자 확대 기능을 더해야 한다.
[나] 화면 안내는 수정이 빠르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장소의 안내는 종이로 바꾸어야 한다.

구조 보기

판단 근거	[가]	[나]
앞에서 인정한 점	수정이 빠름	수정이 빠름
뒤에서 지적한 문제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움	이 장소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음
실제로 요구한 조치	글자 확대 기능을 더함: 보완	이 장소에서 종이로 바꿈: 대체
판단 범위	화면 안내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태도	이 장소의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태도

오해 바로잡기

✕ 두 글에 모두 '그러나'가 있으므로 둘 다 모든 화면 안내의 폐지를 요구한다.

○ [가]는 '기능을 더해야' 한다고 했고, [나]는 '이 장소'에서 '종이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접속 표현 하나로 수용 범위와 요구를 같게 만들지 않는다.

확인과 적용

문항 28 의도 판단

계단 앞 안내 표지는 옆으로 돌아서야 읽을 수 있다. 표지를 출입구 쪽으로 돌려 처음 온 사람도 길을 찾기 쉽게 해야 한다.

글에 근거하여 파악한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현재 표지의 방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칭찬한다.

② 길을 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자세히 회상한다.

③ 안내 표지의 불편을 알리고 배치 방향의 개선을 요구한다.

④ 처음 온 사람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요구한다.

문항 29 수용 범위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화면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므로 전화 신청을 함께 받아야 한다.

글쓴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사람에게 전화 신청만 강제하자고 본다.

② 온라인 신청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고 본다.

③ 온라인 신청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본다.

④ 온라인 신청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 이용 방법의 보완을 요구한다.

문항 30 태도의 근거

자동 기록기는 결과를 빠르게 모아 유용하다. 다만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글쓴이의 평가나 요구가 드러난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태도	근거 표현
장점을 인정함	
추가 조치를 요구함	확인하는 단계가

문항 31 전개와 요구

공동 우산을 빌릴 수 있어 갑작스러운 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납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복도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반납함을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글의 전개를 근거로 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글쓴이가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을 직접 고백한다.

② 장점을 먼저 인정하고 반납의 불편을 제시하여 반납함 위치 변경을 요구한다.

③ ‘그러나’가 있으므로 공동 우산 제도 전체의 폐지를 요구한다.

④ 우산의 장점을 밝혔으므로 반납 방식은 그대로 두자고 한다.

문항 32 적용 범위와 태도

화면 안내는 내용을 빨리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야외 임시 행사장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번 야외 행사에서는 화면 안내 대신 인쇄 안내를 쓰자.

글쓴이가 요구한 범위를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화면 안내의 수정이 느리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는다.

② 야외 행사장에 이미 전기 공급을 마쳤다고 알린다.

③ 이번 야외 행사에서는 전기 공급 조건 때문에 인쇄 안내로 바꾸자고 한다.

④ 모든 장소에서 화면 안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자고 한다.

통합 통합 적용

지문 A 축제 활동 기록



[가] 이 축제에서 무대 장치를 직접 옮긴 학생은 모두 준비 교육을 이수했다. 준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모두 장치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안내 활동만 맡는 학생도 있다.

[나] 활동 기록에는 은서가 무대 장치를 직접 옮겼고, 하준이 준비 교육을 이수했다고 적혀 있다. 소라는 안내 활동만 맡았으며, 소라의 준비 교육 이수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다.

[다] 기록 담당자는 ⓐ“하준이 교육을 이수했으니 무대 장치를 옮겼다고 적어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담당자는 “교육 이수만으로 맡은 활동을 정할 수는 없어. 확인된 사실을 적고, 모르는 것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라고 답했다.

문항 33 기록에서의 추론

지문 A의 정보를 연결하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은서는 준비 교육을 이수했다.

② 소라는 준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③ 하준은 무대 장치를 직접 옮겼다.

④ 준비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모두 안내 활동만 맡았다.

문항 34 추론의 점검

[다]에서 다른 담당자가 지적한 ⓐ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① ‘장치를 옮긴 학생은 모두 교육을 이수했다’를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장치를 옮겼다’로 뒤집어 읽었다.

② 교육 이수 여부를 모르면 준비 교육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③ 은서가 장치를 옮겼다는 기록을 거짓이라고 부정했다.

④ 하준이 교육을 이수했다는 기록 자체를 읽지 않았다.

문항 35 소라에 관한 판정

소라에 관한 문장을 지문 A의 근거로 판단하여 기호를 쓰세요.

고를 기호 ○ 근거로 확인됨
× 근거와 충돌
? 근거 부족

판단할 문장	기호
소라는 안내 활동만 맡았다.	
소라는 준비 교육을 이수했다.	
소라는 무대 장치를 직접 옮겼다.	

지문 B 누구의 의견을 물었을까?



[가] 학생회는 자료실의 운영 시간을 정하기 위해 방과 후 이용자 20명에게 희망 시간을 물었다. 그중 16명은 방과 후 개방 시간을 늘리자고 답했고, 4명은 현재 시간을 유지하자고 했다. 아침 이용자와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묻지 않았다.

[나] 조사 담당자는 ⓑ"방과 후에 더 오래 열면 다른 학생들의 이용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방과 후 이용자만 포함하므로 전체 학생의 희망 시간을 보여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침에 이용할 학생이나 현재 시간이 맞지 않아 오지 못하는 학생의 의견도 확인해야 한다.

[다] 이용자의 응답을 모아 논의를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지금의 결과만으로 전체 학생의 요구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조사 대상을 넓힌 뒤 운영 시간을 논의하자.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들도 운영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항 36 제시된 수치

지문 B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체 학생의 80%가 방과 후 개방 시간 확대를 원했다.

② 설문에 응답한 방과 후 이용자 중 16명이 방과 후 개방 시간 확대를 원했다.

③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운영 시간에 관심이 없다.

④ 아침 이용자는 모두 현재 시간을 유지하자고 답했다.

문항 37 예상의 성격

[나]의 ⓑ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학생이 개방 시간 확대를 원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필연적인 연역이다.

② 조사한 이용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예상한 귀납이다.

③ 귀납이므로 이용자 20명의 응답도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④ 다른 학생의 실제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관찰 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문항 38 생략된 전제 찾기

[다]의 ⓓ를 근거로 ⓒ의 결론을 이끌어 낼 때, 둘을 이어 주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방과 후 개방을 원한다.

② 자료실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만 운영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③ 운영 시간의 영향을 받는 학생의 의견은 운영 시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

④ 자료실의 운영 시간은 언제나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문항 39 판단 근거 연결

지문 B [다]에서 글쓴이가 인정한 점과 보완을 요구한 점을 각각 골라 기호를 쓰세요.

고를 말
㉠ 이용자의 응답을 모아 논의를 시작함
㉡ 전체 학생의 의견을 이미 빠짐없이 확인함
㉢ 조사 대상을 넓힘

인정한 점: _____ **/ 보완을 요구한 점:** _____

문항 40 전체 의도 판단

지문 B 전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글쓴이가 어릴 때 자료실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을 설명한다.

② 설문에 응답한 20명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 판정하여 조사를 중단시킨다.

③ 방과 후 개방 시간을 즉시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정한다.

④ 설문이 보여 주는 범위와 한계를 밝히고, 조사 대상을 넓혀 운영 시간을 논의하도록 요구한다.

정답 한눈에 보기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③	21	ㄴ
02	ㄴ	22	①
03	③	23	④
04	②	24	ㄱ
05	대상: 2학년 신청자 / 날짜: 다음 주 화요일	25	②
06	①	26	③
07	④	27	위에서부터 ○ / ?
08	위에서부터 ○ / × / ?	28	③
09	③	29	④
10	④	30	유용하다 / 필요하다
11	②	31	②
12	ㄴ	32	③
13	②	33	①
14	④	34	①
15	①	35	위에서부터 ○ / ? / ×
16	ㄴ → ㄱ	36	②
17	①	37	②
18	관찰: ㄱ / 예상: ㄴ	38	③
19	①	39	인정: ㄱ / 보완 요구: ㄷ
20	④	40	④

정답과 해설

오답 태그 읽기

지문에 없음 주어진 정보에 없는 사실이나 관계를 보태어 판단함.

뜻을 바꿈 글의 대상·조건·방향·정도 등을 바꾸어 읽음.

일부만 판단에 필요한 내용 중 일부만 읽고 나머지를 빠뜨림.

[지문에 없음]은 주어진 근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 근거 부족**과 연결됩니다. 다만 오답 태그는 **잘못 읽은 방식**, ◯·×·?는 **내용에 대한 판정**을 나타냅니다. [뜻을 바꿈]이라고 해서 언제나 ×인 것은 아니며, 바꾼 내용이 근거와 충돌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해설 01 정답: ③

첫 문장의 '지호는 … 의자를 더 놓자고 했다'가 근거입니다. 제안의 타당성이 아니라 제안한 사람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① **지문에 없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② **뜻을 바꿈** 화단을 늘리자는 사람은 세린입니다. 두 사람의 제안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④ **뜻을 바꿈** 화단을 늘리자는 제안을 기존 의자의 전면 철거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1

해설 02 정답: ㉡

'고쳐 낼 예정이다'는 '수정하여 제출할 계획이다'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은 완료로, ㉢은 제출하지 않음으로 뜻을 바꿉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해설 03 정답: ③

대상을 한정하는 '금요일까지 신청한 학생 중 희망자에게만'을 그대로 지킨 판단입니다.

① **뜻을 바꿈** '이번 겨울'을 다음 겨울로, 발송 예정을 완료로 바꿨습니다.

② **뜻을 바꿈** 신청한 학생 중 희망자라는 대상 조건을 없앴습니다.

④ **뜻을 바꿈** '희망자에게만'이라는 조건을 지웠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해설 04 정답: ②

'몇 명이 사진 편집을 맡았다'는 정보와 '다른 … 학생들이 어떤 일을 맡았는지는 … 쓰지 않았다'는 범위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① **뜻을 바꿈** 사진 편집을 맡았다고 밝힌 몇 명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다른 참여 학생들의 역할은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역할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진 편집을 하지 않았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3

해설 05

정답: 대상: 2학년 신청자 / 날짜: 다음 주 화요일

자료 배부 대상은 '2학년 신청자에게만', 배부 예정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직접 제시했습니다.

채점: 대상에 '2학년 신청자'(또는 '신청한 2학년'), 날짜에 '다음 주 화요일'을 씁니다. '2학년 전체', '화요일'만 쓴 답은 각각 대상·시간 범위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해설 06 정답: ①

'매주 수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규칙에 '오늘은 수요일'을 적용하면 오늘의 휴관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수요일의 규칙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날의 운영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휴관과 전시품 이동을 연결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문을 닫는 날이라는 정보로 관장의 일정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4

해설 07 정답: ④

'세 명 이상'은 세 명뿐 아니라 네 명 이상도 포함합니다. 정확한 수를 정할 정보는 없습니다.

① 일부만 실린 글은 모두 세 명 이상이 검토했다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② 뜻을 바꿈 근거 부족을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③ 뜻을 바꿈 최솟값을 정확한 인원으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5

해설 08 정답: 위에서부터 ○ / × / ?

제출 작품 모두에 번호를 붙였고 태린도 제출했으므로 번호 부착은 확인됩니다. 미부착은 이 정보와 충돌합니다. 색은 밝히지 않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점: 위에서부터 ○, ×, ?를 씁니다. 마지막 칸의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색을 모르는 것과 노란색이 아니라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5

해설 09 정답: ③

이 영화관의 규칙은 '월요일에도 상영한다'입니다. 다른 영화관의 관행으로 이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① 뜻을 바꿈 다른 시설의 경험을 적용해 글의 월요일 상영 규칙을 뒤집었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상영 여부와 예약 완료는 다른 정보입니다.

④ 뜻을 바꿈 휴무 규칙만으로 오늘 요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6

해설 10 정답: ④

문을 여는 오후 두 시와 방문 예정인 오후 세 시를 견주면 세 시가 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① 지문에 없음 계획이 제시되었다고 실제 실행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② 뜻을 바꿈 현재는 오전 열 시이며 오후 방문은 계획입니다.

③ 지문에 없음 문을 여는 시각만 제시했고 닫는 시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질문 04

해설 11 정답: ②

물결 모둠은 규칙의 '발표 등록을 마친' 조건에 해당하므로 시간 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지문에 없음 등록하지 않은 모둠에 대한 배정 규칙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배정 여부만 알 수 있고 사용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④ 뜻을 바꿈 등록 완료에서 시간 배정으로 가는 방향을 거꾸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해설 12 정답: ㄴ

누리는 '설명을 들음'과 '안경을 씀'을 모두 충족합니다. 가람과 다솔은 각각 조건 하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규칙만으로 지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점: ㄴ 하나를 씁니다. ㉠·㉢에게 도구를 주지 않는다고까지 단정하는 답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해설 13 정답: ②

배지는 안내원뿐 아니라 교사 몇 명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배지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안내원 조건을 거꾸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① 뜻을 바꿈 안내원이면 배지를 받는다는 규칙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선발된 모든 안내원에게 지급했다는 전제를 부정했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안내원도 파란 배지를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8

해설 14 정답: ④

'예약한 사람에게 모두 배정'은 예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 방문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① 지문에 없음 현장 방문 자체가 배정 조건이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② 뜻을 바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시우는 예약하지 않은 현장 방문객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8

해설 15 정답: ①

'이 이야기에서는'이라는 전제 범위 안에서 전체 규칙을 은빛 배에 적용했습니다. 가정의 적용 범위를 현실 전체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② 뜻을 바꿈 가정 안에서도 추론 형식의 연결은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뜻을 바꿈 이야기 속 가정을 현실에서 참인 규칙으로 바꿨습니다.

④ 일부만 규칙의 적용 대상에 은빛 배가 속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09

해설 16 정답: ㄴ → ㄱ

제작자라는 조건에 첫 규칙을 적용하면 출입증 수령이 따라옵니다. 이를 둘째 규칙에 적용하면 포장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점: 첫 칸에 ㄴ, 둘째 칸에 ㄱ을 씁니다. 화살표는 규칙을 적용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향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7

해설 17 정답: ①

네 모둠의 한 주 관찰을 다른 모둠에 넓히는 것은 귀납입니다. 기대를 세울 수 있지만 더 넓은 범위의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뜻을 바꿈** 네 모둠·한 주의 관찰을 모든 모둠·언제나로 넓혀 확정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일반화의 한계가 관찰된 결과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효과가 없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해설 18 정답: 관찰: ㉠ / 예상: ㉡

㉠은 조사한 두 학급의 실제 기록이고, ㉡은 조사하지 않은 다른 학급으로 범위를 넓힌 예상입니다.

채점: 첫 칸에 ㉠, 둘째 칸에 ㉡을 씁니다. 예상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해설 19 정답: ①

알아보려는 대상은 모든 학년인데 표본은 1학년뿐입니다. 빠진 학년의 의견을 포함하는 조사가 대표성 점검과 직접 연결됩니다.

② **지문에 없음** 조사 비용은 모든 학년의 선호가 같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③ **일부만** 빠진 2·3학년의 의견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의자 색만으로 빠진 학년의 급식 선호를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해설 20 정답: ④

표본 수만으로 대표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B는 장소와 시간의 범위를 넓혔지만 연령별 비율 등까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① **뜻을 바꿈** 많은 수를 편중이 없다는 보장으로 바꿨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다양한 장소·시간만으로 모든 특성의 대표성이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③ **뜻을 바꿈** 적은 표본 수만으로 조사 가치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해설 21 정답: ㉡

㉡은 '이 받침을 씀'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만 '넘어지지 않음'과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은 주장에 맞는 사례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12

해설 22 정답: ①

같은 시기에 '사진 표지'와 '담당 학생 수'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어느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뜻을 바꿈** 함께 달라진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유일한 원인을 확정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었다는 명시된 정보를 부정했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단독 효과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과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돌아갈 곳 질문 12

해설 23 정답: ④

근거의 '기록 담당자'와 결론의 '촬영 구역 입장 가능'을 같은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① **뜻을 바꿈** 입장 가능에서 담당자 자격으로 가는 반대 방향입니다. 담당자라는 근거만으로 입장 권한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공연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구역 입장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무대 장치의 종류는 예나의 입장 권한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3

해설 24 정답: ㉠

주어진 근거가 신청 완료이므로, 신청 완료에서 재료 수령 가능으로 이어지는 ㉠이 필요합니다.

채점: ㉠ 하나를 씁니다. ㉡은 반대 방향이고, ㉢은 주어진 근거와 결론을 잇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4

해설 25 정답: ②

후보의 방향은 '사용 가능 → 점검을 받음'입니다. 필요한 연결은 '점검을 받음 → 사용 가능'이므로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① **뜻을 바꿈** 낱말의 일치만 보고 조건과 결과의 방향을 무시했습니다.

③ **뜻을 바꿈** 사용 가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을 사용 불가의 입증으로 바꿨습니다.

④ **뜻을 바꿈** 점검을 받았다는 주어진 근거는 그대로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14

해설 26 정답: ③

근거의 이번 달 신청 자격을 같은 달의 자료 수령과 연결합니다. 다른 달이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① **지문에 없음** 그림에 대한 선호가 자료 수령 조건이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② **뜻을 바꿈** 결론과 반대되는 규칙입니다.

④ **뜻을 바꿈** 자료 수령에서 다음 달 신청으로 가는 규칙이므로 현재의 근거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3, 질문 15

해설 27 정답: 위에서부터 ◯ / ?

후보를 전제로 넣으면 회원인 현우의 서가 이용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실제 모임의 운영 규칙인지는 제시된 정보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채점: 첫 칸에 ◯, 둘째 칸에 ?를 씁니다. 둘째 판단을 확인하려면 실제 운영 규칙 등의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5

해설 28 정답: ③

'옆으로 돌아서야 읽을 수 있다'는 불편을 밝힌 뒤 '출입구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① **뜻을 바꿈** 불편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어린 시절이나 개인 경험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④ **뜻을 바꿈** 처음 온 사람도 길을 찾기 쉽게 하자는 요구를 출입 금지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6

해설 29 정답: ④

'편리하다'고 인정하고 '전화 신청을 함께' 받자고 했습니다. 수용한 장점과 보완 요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① 뜻을 바꿈 두 방법을 함께 두자는 요구를 전화만 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② 일부만 편리하다는 부분만 읽고 화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보완 요구를 빠뜨렸습니다.

③ 뜻을 바꿈 함께 받자는 요구를 온라인 방식의 폐지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7

해설 30 정답: 유용하다 / 필요하다

'유용하다'는 장점에 대한 긍정 평가이고, '필요하다'는 확인 단계를 두자는 요구를 드러냅니다.

채점: 첫 칸에 '유용하다' 또는 '유용', 둘째 칸에 '필요하다'를 씁니다. '빠르게'는 장점의 내용이지 그에 대한 평가 표현이 아니므로 첫 칸의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장 끝 마침표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6, 질문 17

해설 31 정답: ②

도움이 된다는 평가, 반납 위치의 문제, 위치 변경 요구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접속 표현 '그러나' 하나만으로 폐지 태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① 지문에 없음 글쓴이 자신의 분실 경험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③ 뜻을 바꿈 반납함의 위치를 옮기자는 요구를 제도 폐지로 넓혔습니다.

④ 일부만 뒤에 나온 반납 불편과 위치 변경 요구를 빠뜨렸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해설 32 정답: ③

'이번 야외 행사'와 전기 미공급이라는 조건에 맞춘 요구입니다. 화면 안내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① 뜻을 바꿈 수정이 빠르다는 명시된 장점을 반대로 바꿨습니다.

② 뜻을 바꿈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공급 완료로 바꿨습니다.

④ 뜻을 바꿈 이번 행사의 요구를 모든 장소·영구 금지로 넓혔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8

지문 A 구조 점검

지문 A · 확인되는 사실과 남은 빈칸

장치를 직접 옮긴 학생 → 준비 교육을 이수했음

은서	장치를 직접 옮겼음	**○ 준비 교육을 이수했음**
하준	교육을 이수했음	**? 장치 이동 여부는 모름**
소라	안내 활동만 맡았음	**? 교육 이수 여부는 모름** **× 장치를 직접 옮겼음** '안내 활동만'과 장치 이동은 충돌

교육 이수만으로 맡은 활동을 거꾸로 확정하지 않음

화살표 = 규칙의 판단 방향 · ○ 확인 · × 충돌 · ? 근거 부족

해설 33 **정답: ①**

[가]의 '장치를 직접 옮긴 학생은 모두 … 이수했다'와 [나]의 은서가 장치를 옮겼다는 정보를 연결합니다.

② **지문에 없음** 소라의 이수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부재를 미이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하준은 교육 이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수자가 모두 장치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④ **뜻을 바꿈** 교육 이수자 중 안내만 맡는 학생이 있다는 정보를 전체로 넓혔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4, 질문 07

해설 34 **정답: ①**

규칙은 '장치를 직접 옮긴 학생은 모두 교육을 이수했다'입니다. 첫 담당자는 이를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장치를 옮겼다'로 뒤집어 하준의 활동을 정했습니다.

② **지문에 없음** 교육 자체의 존재를 부정한 말은 없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첫 담당자는 은서의 기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④ **뜻을 바꿈** 첫 담당자는 교육 이수 기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로 확정한 활동입니다.

돌아갈 곳 질문 08

해설 35 **정답: 위에서부터 ○ / ? / ×**

[나]에 '안내 활동만 맡았으며'라고 되어 있어 첫 문장은 확인되고 장치를 옮겼다는 마지막 문장은 충돌합니다. 교육은 '이수 여부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근거 부족입니다.

채점: 위에서부터 ○, ?, ×를 씁니다. 안내만 맡았다는 사실은 교육 미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3, 질문 05

지문 B 구조 점검

지문 B · 응답, 예상, 보완 요구

실제로 조사함
방과 후 이용자 20명
16명: 개방 시간 확대 희망
4명: 현재 시간 유지 희망

아직 조사하지 않음
아침 이용자
자료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가능성 예상: 다른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확정 불가: 전체 학생의 요구와 실제 이용 효과

인정: 응답을 모아 논의를 시작한 점
요구: 영향을 받는 학생을 포함하여 조사 범위를 넓힘

상자 크기는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내지 않음

해설 36 정답: ②

[가]는 조사 대상을 방과 후 이용자 20명으로 한정하고, 16명이 개방 시간 확대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① **뜻을 바꿈** '20명 중 16명'은 조사한 20명 안에서의 결과입니다. 전체 학생에게 넓힐 수 없습니다.

③ **지문에 없음**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관심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④ **지문에 없음** 아침 이용자에게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02, 질문 11

해설 37 정답: ②

관찰한 20명의 응답에서 조사하지 않은 다른 학생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며 효과를 보장하는 연역은 아닙니다.

① **지문에 없음** 모든 학생의 희망을 밝힌 전제는 없습니다.

③ **뜻을 바꿈** 근거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로 바꿨습니다.

④ **뜻을 바꿈** 아직 예상인 내용을 실제 효과 관찰로 바꿨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0

해설 38 정답: ③

비이용자도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에서 그들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 주는 판단입니다.

① **뜻을 바꿈** 현재 시간을 유지하자는 네 명이 있는데 모두 개방을 원한다고 바꾸어 지문과 충돌합니다. 조사 대상 선정의 연결 고리도 아닙니다.

② **뜻을 바꿈** 비이용자도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만'으로 바꾸어 지문과 충돌합니다.

④ **지문에 없음** 현재 시간 유지라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 대상 포함의 이유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돌아갈 곳 질문 13

해설 39 정답: 인정: ㉠ / 보완 요구: ㉢

[다]는 '응답을 모아 논의를 시작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고, '조사 대상을 넓힌 뒤'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채점: 첫 칸에 ㉠, 둘째 칸에 ㉢을 씁니다. ㉡은 지금 결과만으로 전체 요구를 확정하지 말자는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7

해설 40 정답: ④

응답 결과를 소개한 뒤 표본의 한계를 설명하고 추가 조사 대상을 제안합니다. 조사를 모두 무효로 하거나 운영 시간을 바로 확정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① **지문에 없음**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② **뜻을 바꿈** 대표성의 한계를 응답의 거짓으로 바꾸고, 추가 조사 요구를 중단으로 바꿨습니다.

③ **뜻을 바꿈** 추가 조사 후 논의하자는 요구와 달리 즉시 확대와 완전 해결을 확정했습니다.

돌아갈 곳 질문 11, 질문 16